

Gary Yates 박사, Jeremiah, 강의 3

역사적 배경, 국제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세 번째 발표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의 초점은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 특히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관계에 맞춰질 것입니다.

성경의 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책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시는지,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경쟁의 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선지자들을 연구하면서 예레미야의 삶의 상황이 어떠했고,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매우 실용적인 질문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근본적인 질문, 즉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나 인생의 구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지적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고 있다. 곧 너희에게 번영과 미래를 주는 계획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절의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하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들의 삶의 모든 일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면서도 그들이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변영이란 모든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70년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자손과 후대들의 복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한 구절을 뽑아 미국의 심판을 펼치는 구절로 보는 이사야서에 대한 최근 연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 예언에 대한 그러한 종류의 치료법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책과 비디오를 판매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 맥락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위기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예레미야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옛 이스라엘 세계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지만, 미래에는 희망을 주는 무엇인가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벨론의 위기,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사역의 국제적 배경이 이번 시간 우리 세션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켰을 때 겪게 될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축복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저주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땅 끝에서 너를 치러 독수리처럼 내려오시리니 그 나라는 네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며 완고한 나라는 존중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이 네 가축의 새끼와 네 땅의 소산을 먹다가 마침내 너를 멸망시킬 것이며 네 소와 양의 새끼를 네게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멸망할 때까지.”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과 포위의 공포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면서 심지어 식인 풍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저주 중 일부는 유배의 위협, 즉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빼앗길 것이라는 위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흠으시리니 네가 거기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적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너희가 쉴 곳도 얻지 못하며 너희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며 눈이 쇠하며 혼으로 쇠약하게 하시리라.

네 생명이 의심스러울 것이며 밤낮이 불안할 것이며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은 너희 마음이 두렵고 눈으로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배에 태워 애굽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이는 너희가 결코 다시는 가지 못할 길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경고하셨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전에 주님은 기록 선지자들의 첫 번째 물결, 즉 고전 선지자들을 일으키시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실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신 나라는 앗수르였습니다.

앗수르 인들은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포로로 잡아갔고, 남쪽 왕국 유다에도 엄청난 고통과 압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위기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또한 주로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주님은 이 나라들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군대의 이러한 움직임을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앗수르의 제국의 세력을 일으키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폴 길크리스트(Paul Gilchrist)는 이스라엘의 배교가 아시리아 제국주의의 촉매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도 아니었고, 단순한

군사적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군대의 일과 그들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서를 읽으면서 얻는 가장 큰 위로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들과 나라들,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움직임에 일어난 일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감독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국제적인 상황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권력 이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시며, 이 나라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우리는 앗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아시리아의 라이벌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해, BC 626년, 요시야 제13년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3년 뒤인 623년에 그는 바벨론의 독립을 선언했고, 실제로 앗수르를 바벨론에서 몰아냄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나보폴라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역 초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적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심을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서 20장에 도달할 때까지 그 적이 바빌론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이 군대의 정체를 알고 있었나요?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를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초기에 성경 역사에서 맡게 될 역할을 위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온 땅의 망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앗수르 제국의 쇠퇴와 멸망을 보게 되면서 614년에 바벨론과 메대인들이 연합하여 앗수르를 물리치고 그들의 수도 아셀을 함락시켰습니다. 612년에 바빌로니아인과 메디아인에게 멸망된 다음 아시리아의 중심지는 니네베였습니다. 그곳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성읍이요, 나훔이 앗수르 사람들의 잔혹한 행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성읍이었습니다.

마침내 609년에 아시리아인들에게 최후의 일격이 하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요시야는 실제로 그해 므깃도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 제국을 지원하기 위해 북쪽으로 진군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요시야는 바벨론 제국과 그들의 부흥이 마침내 유다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새로운 제국의 부상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인들을 막으려다 살해당했지만 이집트인들은 실제로 아시리아인들을 도울 수 없었고 바벨론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아시리아 제국의 종말이었습니다.

마침내 605년, 바벨론을 고대 근동의 지배 세력으로 확립한 결정적인 전투가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의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이 그의 군대가 이집트인들을 무찔렀을 때, 당시 아시리아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든, 그 시점부터 시리아-팔레스타인 전체가 신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승리를 거두고 이집트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후 느부갓네살은 남쪽으로 와서 기본적으로 하틸란드 전체 나 시리아-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605년에 첫 번째 유대 포로 집단을 제거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 유배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유다에서 데려와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언어, 신학, 문화, 신앙, 관습을 훈련받은 후 다시 백성을 다스리도록 보내질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젊은 소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의 첫 번째 물결이었습니다. 605년 시리아-팔레스타인에 있는 동안 느부갓네살도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좌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유다에서 첫 번째 포로의 물결도 이때 제거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기본적으로 매년 일어날 일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서쪽의 시리아-팔레스타인으로 행진하여 조공을 모으고 또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배하기 전에는 앗수르가 지배 세력이었지만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추방 물결, 두 번째 추방 물결은 기원전 59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인 605년에서 597년 사이, 특히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의 유다 왕은 자신의 충성심을 이집트에 바칠 것인지 바빌론에 바칠 것인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어떤 의미에서 이집트인들을 바빌로니아인과 대결시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대한 반역의 가능성과 대안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음,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2년에 마침내 이것에 지쳤습니다. 그는 여호야김을 족쇄와 결박에 묶었습니다.

그는 그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를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고 그를 석방하고 왕좌에 남도록 허락했습니다.

598년에 그는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다로 진군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야김은 죽었습니다. 그는 동족에 의해 살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왕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포로들의 물결을 바빌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은 겨우 18세였지만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포로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 추방의 일부이기도 한 더 큰 규모의 망명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자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선지자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4~5년 후,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다양한 추방의 물결을 다루면서 아직 그 땅에 남아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 기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597년의 추방이었습니다. 성경 외 역사에서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바벨론이 실제로 예루살렘 도시를 함락한 일이 바빌로니아 연대기 자체에서 우리에게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연대기에는 느부갓네살 통치의 주요 사건, 즉 그가 갔던 곳, 행군한 곳, 군대를 데리고 간 곳, 조공을 받은 곳 등이 나와 있습니다.

598년과 597년의 기록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기록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기록에 따르면, 598년 12월 키슬레우월에 바빌로니아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서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는 유다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597년 3월 16일인 아달월 2일에 그는 도시를 점령하고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선택한 왕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그 무거운 공물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벨론 연대기에서 읽는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록은 예루살렘 함락 이야기를 다시 제공하는 열왕기하 25장과 매우 유사한 또 다른 기록입니다. 이것이 중심 행사였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로 그 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 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유다 정부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가 한 일은 다윗 가계에서 또 다른 유대 왕을 왕좌에 앉힌 것인데, 그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기본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꼭두각시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는 군대나 무장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즉, 그는 바벨론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자 자신을 반역하고 바벨론의 헤게모니에 저항하도록 부추기는 고문들과 군 장교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 역사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하면 심판을 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악의 길을 가다가 멸망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597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왕에게 남은 선택은 바벨론에 항복하거나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와 예레미야서, 역대기에서 시드기야에 관해 읽을 때 그가 매우 약한 통치자였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바벨론에 반역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여호야김이 저지른 것과 동일한 실수로 두 번째 바벨론 침공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반역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바벨론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의 군대를 데려왔고, 침략이 있을 것이며,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다 땅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드기야를 회의에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데려오고,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며,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성읍들을 함락하기 시작하여 이제 아세가와 라기스와 예루살렘 세 성읍만 남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대항하여 무장 저항을 계속 권유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극도로 싫어하는 군 장교들과 군사 고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우리 군인들의 손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감옥에 가두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시드기야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내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내 군대 장교들의 말을 들겠습니까? 그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한 뒤 다시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번은 군 장교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다른 장교가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꺼내야 한다고 확신할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갈등을 겪다가 결국 반역과 저항을 선택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할 것이며, 이는 예레미야 39장과 예레미야 52장에서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을 함락한 후 한 달 뒤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헐고, 성전을 헐고, 그 성을 불로 태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 도시를 함락시키자 밤에 가족과 함께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리고 평지에서 포로로 잡혔고, 시리아의 리블라로 끌려갔고, 결국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 앞에서 처형당하고,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살인이나 그의 아들들의 처형이었는데,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 그의 두 눈을 뽑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일으키신 위기입니다. 위기가 시작될 때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분께로 회복될 수 있으며, 당신의 길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침략,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 군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진정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반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과 저항이 시작되자, 598년에 여호야김은 바벨론 통치에 반역하고 저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586년에 도시가 파괴될 때까지 선택은 항복하거나 파괴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 왕과 그 땅의 마지막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저항과 반역을 계속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유다에 살았던 것이 어땠을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성경 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을 라기스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유다에 있는 라기스 성의 군사령관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요새성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기스와 예루살렘 모두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이 군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들은 하나 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선지자의 언급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기스의 지휘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아스이다. 왕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이는 여호야김이 선지자

우리아를 살해하기 위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한 편지에는 군대의 손을 약화시키는 장교들이 있다는 불평이 있는데, 이는 38장에서 예레미야에 관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4장 7절에는 유다에 남아 있는 세 성읍은 라기스와 아세가와 예루살렘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기스의 편지 중 하나에서 사령관은 아세가의 안전을 나타내는 등불과 봉화로 우리 군대가 아직 거기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봉화는 더 이상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34장에 여전히 서 있는 아세가 성읍이 실제로 그 글자에 해당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악덕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압박하였고, 결국 그 도시는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포로생활과 포로생활은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하되 그에게 권면한 것은 그 땅에 머물면서 보좌관이 되어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유다 사람 그다랴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통치자.

결국 예레미야는 그 땅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한 마음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그가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해 호의적인 소식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그달리야를 돕고 격려하는 것이 백성들 자신에게 더 낫다고 생각하여 선택했습니다. 그달리야는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 같은 말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정착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돌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39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난민들이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다른 반란이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또 다른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으로 그달리야는 암살당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582년에는 더 많은 시민, 더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4차 포로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유배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605년에는 추방이 있었습니다. 597년에는 더 큰 포로들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586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더 많은 추방자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기본적으로 바벨론의 속주가 된 후에도 582년에 네 번째 포로 이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달리야가 암살된 결과로 예레미야 자신도 결국 납치되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유대 군 장교들에 의해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 하나의 이름은 Johanan입니다. 그는 이 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들은 최선의 행동 방침은 그달리야를 암살하기 위해 닥쳐올 바빌론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사역의 마지막 맥락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가 남은 사역을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기관과 보조자 바룩과 함께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다시 언약으로 부르며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보라 이 재앙, 이 재앙,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 전체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심고 거두는 원리가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그것을 확실히 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고 회오리바람을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회오리바람은 이러한 군사적 재앙이 될 것인데, 처음에는 아시리아 군대가, 그다음에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자체에 심고 거두는 개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작동하도록 설계하신 방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에도 그 개념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겪게 될 언약의 저주는 군사적 패배이자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722년, 587년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사역의 역사적 맥락이다. 바로 국제 현장이다. 예레미야가 다루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다의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절박한 시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사역의 맥락이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수업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견해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리고 Walter Brueggemann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예레미야서는 단지 정치적인 관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신학적 관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유다 백성에게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바벨론의 위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관점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이 무엇을 들었는지, 그 말이 자기 동포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수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1장 3절부터 7절까지 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성에 거하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멸하리라 7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이 성읍에 염병을 면하고 살아남은 백성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라. 그 구절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 중 하나는 1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군대를 장기말처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에서 앓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또는 막대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실 때 고레스가 여호와의 목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음받은 자 곧 그의 메시아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고 고레스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왕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할 때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의 성전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거꾸로 뒤집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실 것이라는 온갖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을 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약속의 땅 정복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 위의 나무들 사이에서 여호와와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사밧이 한번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라는 특이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죽도록 노래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대편에 계십니다. 당신이 야구 팬이라면 이것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FA가 된 것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더 이상 레드삭스에서 뛰지 않습니다. 그는 증오받는 양키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유니폼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와 싸우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있는 군대 관리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과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용어는 구약 역사 전반에 걸쳐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다른 많은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부섭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이다. 고레스는 나의 기름부음받은 자이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다른 나라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27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나라와 심지어 땅의 짐승까지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둘째 아담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시적으로 땅을 다스릴 자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세 번째 것입니다. 25장 11절과 12절, 29장 10절에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 약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숫자입니까? 그것은... 제 생각엔 그냥 둥근 모양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평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유배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살 것이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세대가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간 세대는 돌아올 세대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597년 유다 전역에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들의 두 번째 물결이 제거되었을 때,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59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약탈한 성전 기구들이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것이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이 재앙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597년에서 586년 사이에 유다에 살고 있었다면,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70년의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아니면 이 모든 것이 2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보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도, 그들을 상대로 무장한 저항을 계속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유다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바빌로니아인들을 저지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바빌로니아인들과 전쟁을 벌이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군사적 선택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8장에서 그들은 왕에게 나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성에 거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로 나가는 자는 살리라 그는 전쟁의 대가로 그의 생명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으로 볼 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배반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사람들은 제인 폰다를 보고 그녀가 적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하노이 제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 면에서 예레미야 시대의 장교들은 그에 대해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27장에는 593년부터 592년까지 예루살렘에서 정치적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두 번째 포로생활과 마지막 포로생활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회의에서 유다를 둘러싼 나라들은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함께 공존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정렬하여 바벨론의 위기를 견디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위기에 처해 나무 동물 멩에를 메고 그 수양회에 왔습니다. 바벨론의 멩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의 반역을 조장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당신이 형성하고 있는 이 연합은 실행 가능한 정치적 옵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은 절망적입니다. 항복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파멸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위기에 관해 전할 다섯 번째 개념과 다섯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바벨론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군사위기로 돌아가 보자.

597년 2차 유배부터 586년 마지막 유배인 3차 유배까지의 시기로 돌아가 보자.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아주 쉬웠을 것이다. 우리는 외국으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신은 그들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생각들을 다시 기본적으로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무화과 한 그릇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많은 좋은 무화과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러워지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너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들은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니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요점은 유배된 사람들이 꽤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요점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전달한 것은 장차 회복될 희망이 있고 유다 땅에 어떤 생명이 남아 있든 그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포로들을 회복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은 계속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관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벌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정말 중요한 장 중 하나인 이 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을 끝내고 책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예레미야 25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주님은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황무하고 황무하게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칠십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폐하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말을 그 땅에 시행하리라.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은 바벨론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지만 장차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그 나라, 저 동네를 통해서 사역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5장 후반부에서 표적을 행합니다.

그는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데, 이 포도주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땅의 모든 나라가 그 취하게 하는 힘으로 인해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성읍들과 열방이 다 이것을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26절 끝부분에 보면, 그 후에 바벨론 왕도 마시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인 50장과 51장에 가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해당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예루살렘에 대해 말한 동일한 예언의 신탁 중 다수가 바빌론에 대해 다시 적용되고 지시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치러 올 대적이 북쪽에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치러 올 북쪽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책을 공부할 때, 이것이 바로 놀이터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배경이다. 믿기 힘든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는 마지막 날에 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관점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건드릴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입니다.

70년 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며, 그 희망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지탱하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갱신과 회복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세 번째 발표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의 초점은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 특히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관계에 맞춰질 것입니다.